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교안 작성 : 김혜숙

미카엘 에스코피에 글 | 클레망 르페브르 그림 | 정지현 옮김

아르볼 | 10,000원 | 저학년

책 소개

‘아르볼 바로나무’는 초등 저학년 그림책 시리즈이다.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바로 자라도록 돕는 유익한 이야기로 어린이의 바른 생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은 ‘아르볼 바로나무’의 두 번째 이야기로, 새 학년을 맞는 아이들의 설렘과 걱정을 다룬 그림책이다. 새 학년에 올라갈 때에는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더 어려워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은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일 것이다.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에 등장하는 담임 선생님은 무성한 소문과 달리 마녀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도, 화성에서 온 외계인도 아니었다. 선생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다정하게 맞아 주었다. 결국 아이들은 실재도 아닌 일을 미리 걱정한 셈이다. 이렇듯 이 책은 새 학년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그러면서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새 학년 고민 상담소〉와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요!〉에서는 선생님과 잘 지내는 방법, 새 친구를 사귀는 방법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을 소개한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며 새 학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활동 목표

1.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요소를 관찰하여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2. 새 학년에 올라와서 생길 수 있는 학생들의 고민과, 선생님께 사랑받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다.
3. 이야기의 반전에 관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희망하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새 학년에 올라갈 때는 설렘도 있지만 걱정이나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 새 담임 선생님이 되길 바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에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여러 번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두 배로 재미있게 책을



즐기는 방법을 지금 소개할게요.

- 1 그림을 감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마지막에는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 2 주인공 ‘메디’를 잘 살펴보세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사이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 3 그림 속의 비둘기를 관찰해 보세요. 그네를 타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보드를 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지 비둘기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찾아보세요.
- 4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외계인을 찾아보세요.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누가 먼저 찾는지 내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 펼치기

마녀, 괴물, 외계인……. 새 담임 선생님의 정체는?

새 학년을 맞은 마리에타와 친구들은 첫 등굣길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새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문 때문이지요. 그래서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등굣길이 마녀의 집이 되고 괴물이 사는 숲이 되고 황폐한 화성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새 담임 선생님을 무섭게 상상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워진 말 주머니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까 봐 걱정이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사랑하니까요. 그래도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줄게요. 선생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밝게 인사해요	친구를 가려 사귀지 않도록 해요. 겉모습만 보고 친구를 사귀면 정말 멋진 친구를 사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친구에게 화가 났다면 이야기를 나누며 풀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내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선생님이 오해하는 것 같으면,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께 털어놓아요. 선생님은 용기 있게 털어놓는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할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요	선생님을 만나면 밝고 씩씩하게 인사드려요. 친구가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지요? 선생님도 학생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면 기쁘답니다.
마음을 털어놓아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해요. 급식을 받을 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질서를 잘 지켜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 서기를 하며 차례를 지켜요.

새 학년 고민 상담소

📖 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에 가지요. 여러분도 새 학년을 맞아 걱정거리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불안을 한번에 날려 줄게요.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면 어찌죠?	선생님은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_____을 도와주는 분이예요. 학교에서는 부모님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준답니다.
친구를 못 사귀면 어찌죠?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_____을 걸어 봐요.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 친구도 기뻐할 거예요.
공부가 어려우면 어찌죠?	_____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봐요.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건 ‘진짜’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아이들 자신의 상상이었지요. 등곳길 배경이 마녀의 집, 괴물이 사는 산, 황폐한 화성으로 바뀌는 것도 모두 아이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실제로 만난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서운 마녀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도, 화성에서 온 외계인도 아니었어요. 새 담임 선생님은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실제로 아닌 일을 미리 걱정한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 주머니 안에 네 명의 아이들이 했을 말을 상상해서 써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새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준비물: 스케치북, 연필과 지우개,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